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9월 13일(금)

(음력 8월 11일)

Пятница

13 Сентября 2024 г.

№ 36 (1210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142주년을 맞이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포베다 거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42주년 맞아

9월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142주년을 맞이한다. 이날 도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도시 공원, 로가트카 강 제방과 포베다(승리)광장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활동교실, 스포츠 대회, 바자회와 박람회,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시공원에서 정오 12시부터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이곳에서 김축제(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도 열 예정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200명을 위한 김치 담그기, 요리교실을 비롯해 공예활동교실 등 한민족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날 축하 대공연은 저녁 7시 승리 광장에서 시작된다. 러시아 인기 가수 클라와 코키와 제니스 클라웨르가 멋진 무대를 준비한다고 전해졌다.

친애하는 여러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올해 142주년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인프라, 편안한 공공 공간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공원의 오솔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극장이나 콘서트에 가고,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몇 분 안에 스키장을 찾아갈 수 있고 또는 생태 산책로를 따라 숲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장점을 유지하고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 대신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주거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용 출입구와 안뜰이 더욱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거리에는 점점 더 편안하게 친환경 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도는 도시 대중교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과 방문객은 이제 새 공항 터미널을 통해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스포츠 시설과 의료 시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중에는 전시 공간, 체호브 센터의 새로운 무대, 주 필하모닉의 리허설 홀이 있습니다. 라리사 돌리나의 에스트라다 아카데미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교향곡과 팝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실질적인 경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친환경 연료인 수소의 생산 및 사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석유 및 가스, 농업 산업 단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의 청소년들이 수요가 많은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할린테크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여러 세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모든 돌은 우리 조상들의 손길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어린 시민들을 위해 내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최선을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도시의 이익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업무에 새로운 성공을 기원합니다! 생일 축하해, 유즈너*!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유즈너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애칭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재선 11일 취임

사할린주 주지사 선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사할린 주지사로는 80.79%의 득표율을 거둔 알레리 리마렌코가 재선되었다.

'공산당'을 대표하는 파벨 아쉬흐민은 7.56%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고, '새로운 사람들'의 로만 웨제네예브는 근소한 차이인 7.41%로 3위를 차지했다. 최저 득표율은 '공정 러시아당'의 와짐 폴리친스키로 2.24%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1일(수) 명예 시민, 주 및 시 두마 의원, 참전용사, 유명 인사, 사회 활동가, 정부 관계자, 기업 및 언론 대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체호브 센터에서 사할린 주지사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서 알레리 리마렌코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사할린 주 헌장에 대한 선서를 하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시

민적 지위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주지사 선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할린 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배려, 보호, 존중'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역의 주요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정부에 큰 지원을 제공한 정치기관과 민간단체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의원에 동포 3명 당선

지난 9월 6-8일 3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의회) 제7기 의원선거가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선거구 25개에서 의원 한 명씩을 뽑아야 했다. 후보로는 119명이 나섰다. 이번에 선출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의원 25명 중 3명이 한인동포다.

제3선거구에서는 장 예브게니, 제8 선거구에

서는 박 웨니아민, 제21선거구에서는 정 루슬란이 의원으로 선출된 가운데 모두 압도적인 득표율로 우승했다. 선출된 한인동포 의원들은 모두 30-40대 남성들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박 웨니아민은 현재 사할린주한인협회의 고문이다.

(본사 기자)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시작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주정부, 동방경제포럼 결과 발표

사할린 주정부는 2024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7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사할린주정부 회의에서 사할린 대표단의 동방경제포럼에서 활동 결과가 논의되었다.

사할린주지사는 2024 동방경제포럼의 성공적인 완료는 효과적인 팀워크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형식적인'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략 회의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든 전망은 현실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포럼에서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관한 "루스기드로", "사할린 에너지" 및 주정부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사할린지역전기발전소-2의 2단계 설계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열병합발전소-1의 기동성 가스 장비 설치를 포함한 전력망 시설의 건설 및 현대화이다. 석유 및 가스 산업, 산업 시설 및 주거용 건물 건설에 사용될 전기 및 배전반 장비를 이 지역에서 생산하기 위해 '루셀' 홀딩과 계약을 체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보일러 하우스 건설과 돌린스크와 마카로브에 두 개의 진료소 건설을 위한 각각의 양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문제는 주민, 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주지사와의 만남에서 제기하였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사할린 주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언급했다.

주정부는 '가스프롬'과 심해 가스 처리 전망에 대한 회담을 가졌으며, 이 프로젝트에는 사할린에 항공 파라핀과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러시아 연방 부총리 위탈리 사벨리에브가 참석한 가운데 코르사코브 상업 항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논의되었다. 스베르반크와의 회의에서는 섬 수도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코드 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포럼은 사할린 지역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 및 러시아 '즈나니예(지식)' 협회 간의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희망'무용단, 제12회 국제포용무용대회에서 1등 수상

한인문화센터 소속 '희망'무용단이 제12회 국제포용무용축제에서 러시아 전국 53개 지역을 대표하는 232개 단체 중 1등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사할린댄스세계' 사회운동의 일원인 한민족무용단(단장 한덕순)은 65세 이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용단은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물론 여러 한인단체가 하는 행사, 그리고 사회복지부에서, 문화부에서 개최하는 수많은 공연과 행사에 참가한다. 특히 이들의 공연을 노인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에서 많이 기다린다고 전해졌다.

이번 대회 1등 수상자로서 '희망'무용단은 10월말 모스크바에 진행될 제12회 국제포용무용축제의 마지막 행사와 갈라공연에 초청되었다. 이 축제의 모스크바 갈라 공연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민족문화를 전하는 사할린동포 무용단의 무대가 선보이는데 사할린주 사회복지부가 협조하기로 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희망'무용단 제공)

"사할린 ABC"를 소개

유즈노사할린스크 공공지원본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사할린 ABC 교재와 2~4학년 학생을 위한 참고서 '나의 작은 고향, 사할린주 지역 역사'가 소개되었다.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은 새로운 교재를 소개하면서 이 교재가 중학생들이 지역 역사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원했다.

«학생들을 위한 지역역사»프로젝트 담당자이자 사할린주두마 임 유리 의원은 교재 작성 및 편찬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지역학 프로그램 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두 교재 저자를 비롯 이 기획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모 저 모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예술 작품 '살아있는 은' 전시회에서 선보여

유즈노사할린스크 미술박물관에서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특이한 전시회 "살아있는 은"을 열었다. 이는 미술관 홍보보이시 전했다.

방문객들은 전통 악기, 인형, 현대 의상, 액세서리, 물고기 가죽 작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 패널 등을 볼 수 있었다. 전통적인 장식품도 흥미로웠다. 고대부터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특징이었다. 관람 중에는 이것과 관련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될 것이다.

박람회에는 참가하는 마스터들은 아무르 및 사할린 지역들의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전통 기법을 발전시켜 새로운 감동과 의미를 더했다. 전시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니나 거리137번지에서 열리고 있다.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из рыбьей кож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выставке «Живое серебр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открыли необычную выставку «Живое серебро»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искусства из рыбьей кож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уклы, современные костюмы, аксессуары, панно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работы с кожей рыбы. Интересен и традиционный орнамент, так как человеку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свойственно стремление к красоте в окружающем его предметном мире. Об этом и о многом расскажут на экскурсии.

Авторы экспозиции развивают традиционную технику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Приамурья и Сахалина, добавляя в нее новые штрихи и смыслы. Увидеть работы можно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Ленина, 137.

'러시아' 전시회 퀘스트 우승자, 사할린 방문

'러시아' 전시회 퀘스트 우승자 나리안마르 출신의 마리나 사모일로와가 상으로 받은 사할린 여행권으로 사할린을 방문해 섬의 명소를 관람했다. 이는 사할린주 정부 보도국에서 전했다.

러시아 본토에서 온 이 손님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유명한 개구리 바위를 보고, 찌하야 만을 방문하고, 캄차트카 계, 송어로 끓인 우하(생선탕) 등 현지 요리를 맛보았다.

이 관광객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지역과 사랑에 빠

졌다고 말했다. 사할린은 풍부한 자연, 놀라운 요리, 독특한 역사가 있는 놀라운 곳이라고 마리나가 소감을 전했다.

Победитель квеста на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побыв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бедитель квеста на Выставке «Россия» Марина Самойлова из Нарьян-Мара использовала выигранную путевку на Сахалин и посетила остров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стья с материка осталась очень довольна. Она посмотрела на знаменитый останец Лягушку, побывала в Бухте Тихой и попробовала местную кухню —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ба, уху из горбуш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Туристка отметила, что влюбилась в регион сразу же, как сошла с трапа самолета. Сахалин - удивительное место с богатой природой, удивительной кухней и неповторимой историей, отметила Марина.

Краснонополие에서 가족 대회 열려

우글레고르스크 지역 Краснонополие 마을에서 4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인 다채로운 가족 대회가 열렸다. 이는 우글레고르스크 시구 행정부에서 전했다.

부모와 아이들은 대결레로 하키를, 풍선으로 배드민턴을, 수건으로 배구를 했다. 대회는 우정뿐만 아니라 단결, 사랑, 상호 지원을 나누며 승리했다. 이 스포츠 축제는 가정의 해에 맞춰 개최되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근본입니다. 이런 행사는 가족의 가치를 강화하고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줍니다. 휴일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유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라고 Краснонополие 학교의 체육 교사이자 대회 주최자 스웨틀라나 포포와가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배구 경기로 마무리되었으며, 경기는 타이브레이크 끝에 17대 15로 학생들이 승리했다.

В Краснопожье прошли семейные старты

В селе Краснопожье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шли яркие семей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обравшие более 40 участник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апы, мамы и дети играли в хоккей со шваброй, бадминтон с воздушным шаром и волейбол с полотенцем. В состязаниях победила не только дружба, но и сплоченность, любовь и взаимовыручка. Праздник спорта приурочили к Году семьи.

«Семья — это основа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укрепляют наши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и создают уникальные моменты, чтобы побыть вместе.»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как все собрались в выходной день и провели время с пользой и радостью!» - сказала учитель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школы Краснополя и организатор игр Светлана Попова.

В завершении дня состоялся волейбольный матч между учителями и учениками школы, который закончился на тай-брейке. Школьники выиграли со счетом 17-15.

פורونايسک에서 자치단체 간 예술 축제 개최

פורونايسک에서 자치단체 간 예술 축제 '오자레니예(통찰력)'가 열렸다. 이는 'פורونايسک 웨스트니크' 신문에 보도되었다.

행사의 공식 개막은 파이오니어스 스퀘어에서 열렸다. 섬 지역 전역에서 온 40여 명의 시인, 작가, 공연자들이 축제에 참여했다.

"사할린은 힘의 장소입니다. 사할린은 빛과 영감을 줍니다. 축제 노래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라고 미르 문화 레저 센터 이리나 하리티노와 이사가 말했다.

축제는 이를 동안 열렸다. 올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로부터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해방된 지 7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오자레니예"는 섬 작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소통하고, 시 수업을 받고, 자신의 선택을 확인하고, 러시아 문화의 핵심에서 움직임의 벡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갈라 콘서트는 9월 8일 일요일, 미르 시네마 콘서트홀의 창작 워크숍 '언어의 실험실'에서 열렸다.

В Поронайске прошел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искусств

В Поронайске стартовал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искусств «Озарени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издании «Поронайский вестник».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о в сквере Первопроходцев. В фестивале участвовали свыше 40 поэтов, авторов и исполнителей со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есто силы - Сахалин. Сахалин озаряет и вдохновляет. Фестивальная песня звучит и сердца открывает друг другу», - 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Мир» Ирина Харитинова.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два дня. В этом году он посвящен 79-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8면에 계속)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 귀국자 역방문 지원사업 재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러시아 현지 가족을 만나기 위해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항공 운항 축소로 지난해부터 뱃길을 통해 소규모로 진행하던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 역방문 지원사업을 4년 만에 항공을 통해 대규모로 재개한다.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10명은 이번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고 돌아올 계획이다. 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하고 광복 이후 귀환하지 못한 사할



린동포 1세대와 동반가족(2세대)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러시아, 중국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극동 지역 투자 기회를 제시

올해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제24회 중국국제투자 무역박람회(CIFIT)에는 전 세계 119개 국가 및 지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를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 보도부에서 전했다.

이 행사는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국제 협력 구축을 위한 플랫폼이 되었다.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의 투자 프로젝트 지원 담당 부사장 세르게이 스킨리가 러시아 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소개하는 주요 세션에서 연사로 나

섰다.

연사는 투자자들에게 극동 지역에서 운영되는 네 가지 독특한 제도, 즉 선진개발구역, 자유항, 러시아 연방 북극지대, 쿠릴열도 특혜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러한 제도는 첫 10년 동안 기본세를 사실상 0으로 인하(쿠릴열도의 경우 첫 20년 동안), 특별 관세, 조세 및 행정 제도, 특별 양허 금융 프로그램, 자유무역지대 제도 및 기타 특혜를 포함하여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할린, 극동 법률 포럼 개최

지난 9월 10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4회 극동 법률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300여명의 법률 전문가,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모여 현대 법학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디지털 루블리와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법적 규제였다.

사할린 주정부의 왜체슬라브 알렌코브가 언급했듯, 사할린 주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할린 극동 법률 포럼은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추석

정의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가위, 한가위,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 가위나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가배는 가위를 이두식의 한자로 쓰는 말이다.

어원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추석'이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라 할 수 있다.

유래
추석의 시원(始原)이나 유래에 대한 명확한 문헌 자료는 없다...

우리 문헌에는 12세기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추석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지만 그 시원을 밝히는 내용은 아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추석이 신라 초기에 이미 자리 잡았으며,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면에 계속)

"고려인 40%에 방문취업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단일화해야"

'재외동포청 1년' 간담회서

고려인·사할린동포 등 정책 제언

서울=연합뉴 스) 성도현 기자 =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 10명 중 4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갖고 있어 불이익이



많다며 재외동포(F-4) 비자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1년, 시민사회-재외동포청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 회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H-2 비자를 가진 고려인 동포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생계와 삶의 질이 위협받는다"며 "재미동포처럼 모든 고려인 동포에게 F-4 비자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민족과 결혼한 고려인 배우자에게 주는 방문동거(F-1) 비자는 취업이 어렵다"며 "저소득 고려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남양주시 사할린동포회장은 "사할린동포법 제·개정으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인 자녀 모두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되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동반가족 개념에는 사망한 동포의 2세대들이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중국동포연합중앙회장은 "국내 체류 동포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하지만 제한 중국동포 사회가 처한 현실과 최근 사건·사고들을 보면 한계를 느낀다"며 "재외동포청이 국내 체류 중국동포 현안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청 설립 이후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에서 호혜적 동반성장 정책으로 기조가 변경됐다"라며 "국내 체류 동포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관련 서비스도 통합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임재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동포청의 그간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9.11 raphael@yna.co.kr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дата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공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공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공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друг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1 сентября 2024 года в з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Кореи прошел круглый стол под названием "1 год Агентству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корейские общины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касалс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проблемах рассказал Ли Су 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города Намянжу.

Ли Су Дин отметил, что благодаря принятию и пересмотру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ыл достигнут значительный прогресс: теперь не только с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но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их члены семьи, включая всех детей, имеют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по программе. Это стало важным шагом в улучшении условий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их семей.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т прогресс, Ли Су Дин указал на серьезную проблем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не дождавшись репатриации, по-прежнему не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лиц,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в Корею. Он призвал к внесению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эту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восстановить семейные связи.

Кроме того,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были подняты другие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Глав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Жанна Тен указала на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й характер визы Н-2. Он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визовый статус для супругов корейцев, состоящих в межэтнических браках,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легально работ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и семь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им Ми Джон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число целевых групп политик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на выразила беспокойство по поводу недостаточ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учета их нужд.

Круглый стол стал важ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насущных вопросов и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в Корее, включа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К учтут поднятые вопросы и примут меры для поддержки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улучшения их жизни в Корее.

Жанна ТЕН

Состоится эксклюзивный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17 дней»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эксклюзивный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17 дней».

«17 дней» — это семейная история, которая погрузит вас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лное любви, воспоминаний и поиска себя.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непросто пути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вынужденных покинуть родные места и найти новую жизнь в Казахстане. Через трога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бабушки и её внука вы увидите, как сила любви и поддержки помогает сохрани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передать важные ценности новым поколениям.

Просмотры состоятся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15 сентября 13.00 (кинотеатр «Империя гре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19 сентября 19:00 (Дом журналиста), в Москве 21 сентября 13:00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Меридиан» и 22 сентября 16:00 (Дом Булата).

Автор идеи и сценарист фильма – Валентина Пак, режиссер – Владимир Хан.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состоится встреча с авторами фильма.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его создан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стать частью этого особенного события и ощутить силу семьи,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поколения.

<https://t.me/saramkor>

Ансамбль «Химанг» стал лауреатом 1-ой степени 12-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инклюзивного танца

Участник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Мир"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Химанг" стал лауреатом 1-й степени 12-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инклюзивного танца. В конкурс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232 коллективов из 53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ллектив вылетает в Москву для участия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фестиваля и гала-концерте.

В «Танцевальном мире» сообщили, что считают большим достижением как для коллектива, так и для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эт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 гала-концерте в Москв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хореография в исполнении возрастных нос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Участниками ансамбля явля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янки в возрасте 65+. Они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не только РООСК, но и во многи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концертах, фестивалях и т.д. Их всегда с радостью ждут в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и людей с ОВЗ.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гала-концер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ет в Зале Церковных Соборов Храма Христа Спасителя, который вмещает до 1300 зрителей.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нсамблем «Химанг»)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тала Дина Ха

В августе состоялось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Работа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была признана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Был выбран новый состав правления в составе 10 человек.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Пб избрана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Ха Дина.

Ха Дина родилась в 1961 г. в г. Долинск на Сахалине. Имеет два высших образования- тех-

ническ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 профессии финансист.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учредителей 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ктивный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с 2018 г.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занимается общественными делам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нима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и двух семинаров по вопрос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ного времени уделяет вопросам про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аш корр.

В Москв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усок»

В Екатерининском парке 14 сен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усок».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ждут выступления вокальных и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обряды и игры,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изделий народных промыслов, фотозоны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Департамен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Чусок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и любимых праздников у корейцев. Дословно Чусок означает "осенний вечер". Он проводится в 15-й день восьмого месяца лунного календаря. Чусок — праздник сбора урожая, семьи и рода,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день благодарения. Фестиваль осеннего полнолуния, он всегда был и остается самым большим и любимым народным праздником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ования они радуются богатому урожаю, встречаются с семьями, выражают уважение своим предкам, подчеркивая важность единства семьи, верность родным местам и национальным традициям»,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главных традиций праздника является празднование Чусока в доме самого старшего члена семьи, поэтому большинство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навещают своих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родителей. Издревле самым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праздника был обряд благодарения за урожай и подношения даров нового урожая божествам и духам.

Затем по традиции наступало время песен и танцев, обильных застолий и гаданий по погоде о будущем урожае. В Чусок готовили особую пищу из плодов нового урожая, наличие которой за праздничным столом предполагало изобилие в будущем год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укреплен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Главным блюдом праздника и по сей день счита-

ются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на пару пирожки сонпен, которые готовят из риса.

Исторически в Чусок корейцы переодевались из летней в новую осеннюю одежду, поэтому женщины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много пряли, ткали и шили, особенно красоч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одежду ханбок. Все эти особенности праздника хоть и в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ом виде, но сохраняются до сих пор.

В старые време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Чусока всегда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коллективными играми и ритуалами, в которых участвовали все жители деревни.

Самым массовым традиционным гулянием является женский хороводный танец канкан-суллэ, сопровождаемый хоровым пением. Во время этого танца группа девушек, взявшись за руки, образует круг двигаясь медленно, и все более убыстряясь, кружатся вокруг находящейся в центре хороводного круга солистки. Солистка поет песню, которую хором подхватывают остальные участницы хоровода.

В наши дни, как и в старину, проводится обряд (чаще в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м варианте), известный как «черепашья забава» — кобук нори.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уют состязания, танцы и чайные церемонии. Вместе с мастерами люди занимаются различны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поделками, ремеслами, рисованием, каллиграфией, вышивкой и бумажным искусством.

Чусок ждет гостей в Екатерининском парке 14 сентября с 10:00 до 17:30.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состоится в 13:00.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аздника является Москов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епартамен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города Москвы.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им Чен Ын: КНДР будет неуклонно укреплять свои ядерные силы

«КНДР будет неуклонно укреплять свои ядерные силы, способные полностью противостоять любым угрожающим действиям со стороны её ядерных соперников. Она удвоит усилия, чтобы сделать вс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включая ядерные,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ыми к бою».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ая 9 сентября на совещании в Пхеньяне по случаю 76-й годовщины основания КНДР.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действия враждебных сил во главе с США представляют серьёзную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необходимо «поддерживать 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КНДР в полной готовности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 любое время», - добавил он. КНДР является ответственной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её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самозащиты и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угрозы для других. Однако силы, 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НДР опасностью, сами «вынашивают враждебные планы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включая намерения нанести ядерный удар», - подчеркну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призывают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к диалогу

Правящая и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призывают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четырёхстороннему диалогу, в котором также участву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ля разрешения споров, связанных с приёмо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и другими проблем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Лидеры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и гла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достигли согласия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9 сентября встреч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Вон Сика. Лидер фракци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Чху Гён Х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частие в диалоге медицин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меет первостепенное значение. Лидер фракции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Пак Чхан Дэ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винуть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по-прежнему расходятся во мнениях по поводу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на Чхусок подорожает на 1,6%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дготовку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по случаю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семья южнокорейцев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потратит в среднем 209.424 воны или 156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1,6%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анализа цен на 24 товара на 16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и у 34 крупных дистрибьюторов в 23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ри условии покупки продуктов на рынке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обойдётся на 10% дешевле, чем при покупке в супермаркетах, и составит 194.712 вон (145 долларов).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14 из 24 парализованных товаров оказались дешевле. Однако из-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купать яблоки, груши, капусту, редис, говядину, рыбу и каштаны дешевле в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В этом году яблоки на 13,1%, а груши на 10,4% дешевл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 овощи дорож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виаперевозки продолжают расти

По данны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и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аэропортов,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рейсам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15 млн 699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19,9%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Это 97% от показателя того же периода 2019 года. Рейсами в Японию перевезено 4 млн 165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18,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на 25% больше, чем в 2019 году.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совершивших полёты в страны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ыросло на 8%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4 млн 248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95,4% уровня 2019 года. 2 млн 788 тыс. человек совершили полёты в Китай, что на 58,9%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ейсами в США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1 млн 229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16,3%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При этом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а европейских рейсах сократился на 0,2%, составив 879 тыс. человек.

Назначен новый начальник службы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РК

9 сен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назначил Пак Чон Чжуна начальником службы своей охраны вместо Ким Ён Хёна, назначенного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Пак Чон Чжун, которому 59 лет, в 1986 году с отличием окончил Коре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лиц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Ранее он был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полиц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и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службы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Безопас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 важная задача,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ная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ью», - сказал Пак Чон Чжун, вступая в новую должность. Он обещал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безупречно выполнить свой долг по защит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РКИ

Экс-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стал подозреваемым в деле о коррупции

Похоже,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оправдывать уже закрепившийся за ней стереотип,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все ее президенты после ухода с поста попадают в тюрьму либо как минимум оказываются втянутыми в скандалы, а на скамье подсудимых оказываются их ближайш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помощни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овых кругах, экс-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который правил страной с 2017 по 2022 гг., официально теперь проходит как подозреваемый в получении взятки в связи со скандалом с наймом его бывшего зятя.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я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зданий от 1 сентября, в ордере на обыск дома дочери Мун Чжэ Ина Мун Да Хе экс-президент значился как "подозреваемый в получении взятки". Сам обыск прошел совсем недавно - 30 августа. Следователи пытались получить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бы подтвердили их подозрения, что бывший супруг Мун Да Хе Со Чхан Хо был с нарушениями правил нанят на пост управляющего директора та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Thai Eastar Jet Airline - тай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оукостера Eastar Jet Airline.

Если вдаваться в детали скандала и подозрений, то они следующ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бизнесмен Ли Сан Чжик основал тайск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Eastar Jet Airline компанию Thai Eastar Jet Airline. В марте 2018 г. Ли был назнач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директо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поддержки малых, средних и венчур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о время Мун Чжэ Ин уже был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В июле того же года зять Му Чжэ Ина Со Чхан Хо стал управляющим директором Thai Eastar Jet Airline. В 2020 г. Ли Сан Чжик стал депутатом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оторая поддерживала Мун Чжэ Ина и 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днако уже в 2022 г. Ли лишился значка народного избранник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уд признал его виновным в нарушении правил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Подозр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зятя президента и самого Мун Чжэ Ина озвучили политические конкуренты "демократ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кругов Южной Кореи -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праведливые люди". Вопросы вызвал тот факт, что Со до этого не имел вообще никакого опыта работы в авиаиндустрии, а ранее трудился в компании IT-игр. Кроме того, на момент приема его на работу Thai Eastar Jet Airline имела серьезные финансовые проблемы и особо не нуждалась в новых позициях в руководст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куратура Южной Кореи начала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дозрений. Поначалу весь скандал и дело в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значилось как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полномочиями и растрата средств авиакомпании", но недавно все было переименовано в "Дело о поддержке детей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и нарушениях при найме на работу в авиакомпанию".

Главным вопросом является то, был ли вовлечен экс-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во всю эту возможно коррупционную схему. Теперь же с получением Мун Чжэ Ином офи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прокуратура склоняется в пользу того, что экс-лидер страны был осведомлен о нарушениях и был косвенным бенефициаром схемы. Прокуратур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зарплату его бывшего зятя Со на посту управляющего директора авиакомпании в размере около 200 млн вон (ок. 15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как косвенную взятку Мун Чжэ Ину.

Отметим, что в 2021 г. дочь Мун Чжэ Ина Мун Да Хе развелась с мужем Со, что, впрочем, никак не повлияло на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 целом мо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над быв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ом стали сгущаться тучи. Подозрения заключаются в том, что Ли Сан Чжик получил пост главы госкорпорации и затем стал депутатом, а 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это устроил на работу зятя президента.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обыски прошли в доме не только Мун Да Хе и ее бывшего супруга Со Чхан Хо, но следователи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ордер на анализ всех банковских транзакций Муна и его супруги, экс-первой леди Ким Чжон Сук. Кроме того, на допрос были вызваны фигуры,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 ключевые посты в окружении Мун Чжэ Ина - экс-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 Гук и бывший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м Чжон Сок.

Все это наталкивается на жесткую критику и отрицание обвинений со стороны всех подозреваемых и оппозиц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видит во всем этом попытку мести консерваторов за "посадку" при Мун Чжэ Ине экс-президентов РК Ли Мен Бака, Пак Кын Хе и импичмент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ли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лагерь. Кроме того, демократы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прокуратура действует по указанию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был генпрокурором, и пытаются отвлечь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т подозрений, которые е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нынешн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и его жены Ким Гон Хи. Как заявил экс-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 Гук,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возглавляет третью по влиятельности партию парламента и находится в оппозиции к правящим консерваторам,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прокуратур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хотя бы соую долю того усердия, которое он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 деле Thai Eastar Jet Airline, при расследовании подозр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Юна и его жены Ким Гон Хи". Чо, допрошенные бывшие сотрудн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руководство Thai Eastar Jet Airline и сам Со Чхан Хо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никаких нарушений не было. Авиакомпания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Со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объявленный при наборе на новую должность, бывшие политики и чиновники заявили, что Ли Сан Чжик был назначен главой госкорпорации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правил и никто не просил его принимать на работу зятя Мун Чжэ Ина. Однако, согласно просочившимся в прессу слухам, которые, впрочем, возможно были специально "слиты" журналистам прокуратурой, следователи якобы получили показания одного из сотрудников Thai Eastar Jet Airline, который сказал, что Ли Сан Чжик дал указание принять на пост управляющего директора Со Чхан Хо.

Возвращаясь к неизбежному политическому шлейфу всего этого скандала,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над Мун Чжэ Ином нависла угроза тюремного срок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чевидно, что следствие ведется 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оже. Сраз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рока его правления уже было расследование скандалов, касающихся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о все в итоге ограничилось предъявлением обвинений его ближайшим помощникам, включая экс-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и главу разведки, но до самого Муна не добрались. Теперь же официальным подозреваемым стал он са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РГ)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ак защита от мошенников

Сеул, 9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Shinhan Bank представил систему анализа настроений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Банк сообщил, что 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была внедрен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м гигантом страны KT, анализирует широкий спектр эмоциональных состояний клиентов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Он делает это, анализируя их голос, уровень стресса и выбор слов во врем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AI voicebot.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истема немедленно соединяет клиента с банками-людьми или други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службами.

Компания стремится усилить свою защиту от финансов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включая голосовой фишинг, используя систему для обнаружения признаков беспокойства или определенных слов в голосах клиентов. По словам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Shinhan, эти конфиденциальные данные хранятся в тайне, чтобы преступники не могли им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и

выявлении та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систем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одозревает потенциа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сбои и оперативно связывает клиента со специальной группой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мошенничество в банке.

Shinhan Bank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страны в области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ричем обслуживание клиентов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областей, затронутых этой инициативой. Однако расширение клиент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 баз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ызывает рост жалоб со стороны клиентов, особенно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Shinhan сказал, что фирме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о подобных жалобах,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ИИ — это всего лиш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нструмент, который решает простые и повторяющиеся задачи. «Поскольку система ИИ еще не совершенна, сложными консультациями по-прежнему занимаются банкиры-люди», — сказал чиновник. «Мы продолжи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наше обслуживание клиент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1 сентября в Чехов-центр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инаугурации нового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оздравить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официальным вступлением в должность пришли сотни гостей – почетные граждане, ветераны, депутат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СМИ.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инаугурац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знес клятву на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У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обратился ко всем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прояв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и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удуще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Вы проявили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Народ – это источник власти. И я благодарен за то, что получил довери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о второй раз. Это значит, что курс, которым мы идем, правильный. Все наши дела мы вершим под лозунгом «Забота.Защита.Уважение». Я верю, что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ждёт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Давайте это сделаем вмест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дельн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розвучали в адрес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принятии ключевых для региона решений, а также оказывали 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областн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путато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Наша команда сдала свой главный экзамен. И получила оценку «отлично». Это неслучайно. В своей работе мы руководствуемся тремя принципами – нацеленность на результат, разбираться в деталях, любить людей. Хочу также сказа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воим ближайшим помощникам из народа – общественникам, волонтерам. Через вас я чувствую правду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 доба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т лиц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масштабной, значимой победой и желаю и дальше так же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ам и вашей команде удалось дважды одержать победу на выбора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тому что вы совершенно искренне, честно работали над решением наиболее важных для населения проблем – эт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воров,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решение вопросов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газификации и цифровизации медицины. У нас идет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и мы все вместе 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скорейшего приближения победы. Команда во главе с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делает все возможное и в тылу, решая вопросы семей воинов отечества и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для фронта. Я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вам и вашей команде здоровья, сил и терпения, – произнес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 От себя и от всех православн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ажаю сво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и поддержку в Вашей победе на этих выборах. В уверенной победе и избрании второй раз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 сегодня обличены доверием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менно с вами они связывают свои чаяния и надежды, свое будущее, именно вы смогли внушить им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и процветать, – отметил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Никанор.

За прошедшие пять лет существенно вырос уровень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обрела новый облик и стала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звити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во всех сферах.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нельзя.

Во главе реш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предстоящий пятилетний период будет заложен принцип заботы о сахалинцах и курильчанах. Вся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 учетом интересов и потребностей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наказах, собранных от жителей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Как счита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ажно и дальше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островитянами, решать насущные проблемы и вовремя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запросы людей. 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региону здесь оказывает также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Уже сейча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гиона заложен ряд важны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ршить в предстоящую пятилетку. Среди них – создание двух крупных морских портов в Корсакове и Поронайске,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ов, продолжение масштабной газификации. Заверш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при самом современном аэровокз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районах продолжится возведение поликлиник,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и дорог. Дорога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Охи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получит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Масштаб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хватит вс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появится 150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ится актив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ликвидац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селить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около 34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ажнейший приоритет –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Продолжится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и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за сч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влечения врачей, подготовки своих кадров на базе филиал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торый откро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филиала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Уже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д наставничеством московских педагогов здесь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лучшие студенты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Теат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театре им. Евгения Вахтангова – один из известнейших вузов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тит свой 110-летний юбилей. Сегодня это высш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в Москве, готовящее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следующи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артист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 кино, артист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артист мюзикла, режиссер драмы, а также магистров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режиссура, театральная драматургия и сцен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мастерство актера, театральный менеджмент, сценография.

- У нашего прославленного вуза за всю его 11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филиалов в России. Считаю, что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должны воспроизводить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России в атмосфере Пушкина, Достоевского, Островского, Толстого. Если честно, от ощущения значимости события аж дух захватывает, – отметил ректор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театре имени Евгения Вахтангова, профессор,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Ф Евгений Князев. – Благодаря неустанной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ьги Любимовой,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а Самарда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Чехов-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а Агеева и моей команде в театральном институте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мы пришли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который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начало новой главы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а, но тольк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вс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филиала стали проректор по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ститута Алексей Лазарев, проректор по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е и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е Андрей Беликов и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мастерства актера, профессор,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Ф Павел Любимцев.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рабо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еат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объявил открытый конкурс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для обучения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на базе которой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корпус, в который войдут как действующие педагоги вуза, так и вновь обученные по грантовой программе.

В марте 2025 года начнет работу приемная комиссия, которая осуществит полноценный набор студентов на очное обучени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Актёр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 кино» с перспективой открытия 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А уже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чнёт полноценную работу.

- Открытие фили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мощный скачок в развитии вс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ы. И я счастлива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при эт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моменте, – поделилась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заслуженная работница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Корнеева. –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стартует этой осенью. Базовые дисциплины, не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я к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удут вести остров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и предметами займу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Первыми студентами станут в том числе актрисы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хов-центра Наталья Шаркова и Татьяна Максимова.

Подарком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филиала стал показ спектакля «Медный всадник» на сцене Чехов-центра. Этот монументаль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Театр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совместно с Академией русского балета имени А. Я. Вагановой. В постанов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менитые выпускники дву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являющихся эталонн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институтами в та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ак драмат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и балет. Мероприятие реал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Приоритет 2030». Теат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включен в программу «Приоритет 2030» в 2021 году. Подробности на сайте www.priority2030.ru.

Напомним, филиал института расположен в здании ЮСПК СахГУ (улица Ленина, 284), разделяя с ним пространство.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здесь завершили финальн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овое здание отвечает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эффектив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было создан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и участии москов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станет еще интереснее

Специальные полезные игры помогут развивать тех-

н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и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коре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киберфизической платформой «Берлог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подпис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и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участников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кружков, лидер Национальной киберфизической платформы «Берлога» Алексей Федосеев.

Национальная киберфизическая платформа «Берлога» включает серию бесплатных полезных мобильных и видеогр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гры объединены общим сюжетом и посвящены развит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России.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явится новая сеть кружков, где ученики будут изучать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беспилотной отрасли, ИИ,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На Сахалине очень талантливые дети. Мы развиваем их способности в «Кванториумах» и «Точках роста», на днях открыли грандиозный по масштабу проект «СахалинТех Алайд», для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открыт айти-парк, наши школьники начиная со второго класса сами конструируют простейшие д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делает большой упор 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и мы привлекаем все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развития потенциала детей. Работа с платформой «Берлога» даст отрасли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выберут педагогов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перв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открытия кружков, и организовано обучение наставников. Далее начн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новых видеогр,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гружать школьников в приоритетные дл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феры.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ервым регионом после запуска пилота в Республике Башкортостан, который перешел на следующий этап включе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киберфизическую платформу «Берлога» и начинает реализацию «дорожной карты» с конкрет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Благодарим коллег за готовность трансформиров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школьников в регионе в опоре на платформу «Берлога» – впереди у нас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запуску кружков нового формата, обучению педагогов, внедрению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етодик и, конечно, разработке новых игр с акцентом на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а,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Федосеев.

Проект «Берлога» реализуется с 2023 года командой АСИ, Платформы НТИ, Круж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Н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овые поликлиники и вторая очередь ГРЭС-2: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ВЭФ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лючило 7 соглашений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2024. Итоги работы делегации регио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бсудили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успешное завершение ВЭФ-24 – итог эффективной командной работы.

- Ни одного форм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е было. Все перспективы реальные, которые мы обсуждали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совете и котор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ретворяются в жизн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форум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АО «РусГидр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и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региона о развити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тану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модернизация объектов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й ГРЭС-2 и установка маневренного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ТЭЦ-1. С холдингом «Русэл»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оизводств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ого и электрофит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ов и жилых домов.

- Подписаны два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я: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отельн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также двух поликлиник - в Долинске и Макарове. Вопрос о медицинском обслуживании поднимался на встреч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 насел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профсоюзами. Он будет решен,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про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с ПАО «Газпром»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газа: проект предполаг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виационного керосина и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При участи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италия Савельева на полях ВЭФ обсуждались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порта.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с ПАО «Сбербанк» поднимался вопрос о разработке нового дизайн-кода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форум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отделением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и Росси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Знан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조선인의 슬픈 이야기

어린이 역사동화 원화전 <사할린 아리랑> 서울 강북 근현대사기념관 전시 중

8.15 광복절 79돌을 맞아 머나먼 낯선 땅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아픈 과거사를 담은 어린이 역사동화 원화전 <사할린 아리랑>. 이 원화전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 해방 후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할린 아리랑>(2023, 8. 15, 한울림어린이)은 정란희 작가와 양상용 화가에 의해 그림책으로도 출판됐다. 79돌 광복절을 맞아 책 내용과 그림을 중심으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정란희 아동문학작가가 쓰고 양상용 화가가 그린 <사할린 아리랑>전이 지난 5월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근현대사기념관 1층 강북팀구공관에서 열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조선인들이 사할린 섬에 끌려갔다. 그들은 동토의 땅 사할린섬에서 탄광, 벌목, 철로공사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달리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들 강제징용노동자들은 열어죽고, 굶어죽고, 고향산천과 부모 형제가 그리워 미쳐 죽는 사람도 있었다.

8.15해방을 맞았지만 사할린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일본의 자국민 행기, 러시아의 노동력 욕심, 한국의 무관심 때문에 고국을 땅을 밟지 못했다.

일본과 러시아 영토 사이인 북태평양 있는 사할린섬은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는 섬 중 면적이 가장 큰 섬으로 알려져 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할린남부의 통치권을 행사했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사할린 천연자원을 전쟁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석탄을 캐고 나무를 벨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바로 식민지 지배의 조선인 청년이 강제노동의 대상이 됐다. 당시 6만 여 명이 조선인들이 사할린섬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했고, 보리밥 한 덩이에 늘 허기졌고, 수시로 무너진 탄광에서 석탄을 캐야 했으며, 온갖 체벌과 고통 속에서 곡괭이를 깎아 철도와 도로를 놓아야 했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발목을 하다 죽어갔다. 도망치다 걸리며 고문과 확대는 더욱 심했다.

동화의 주인공 김흥만은 1941년 5월, 열일곱 살의 나이에 일본 순사에 의해 끌려간 사할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이다. 그는 하루 12시간, 때로는 15시간 탄광에 들어가 석탄을 캐야 했다.

그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붙잡혀 죽기 직전까지 몽둥이질을 당했다.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판자로 사방을 막은 독방에 몇 날 며칠을 갇혀 있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바닥에서 주운 사금파리로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어느 방에선가 흐느낌 같은 희미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흥만은 눈물 속에서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동네잔치가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흥겹게 부르던 노래다. 동생들과 나무하러 갈 때 작대기를 두들기며 부르던 노래이기도 했다.



▲ 전시작품 '사할린 아리랑' 전의 전 시작품이다. © 김철관



▲ 작품들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그림과 역사 사료들이 전시됐다. © 김철관



▲ 전시작품 '사할린 아리랑' 전시 그림과 글이다. © 김철관

일본 패망으로 조국이 해방됐지만 흥만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많은 조선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 고향에 가지 못한, 고향에 가고 싶어 미쳐 죽은 조선인들의 영혼이 아직도 서글픈 사할린 아리랑을 부르며 그곳에 있다.

전시를 한 정란희 작가는 '사할린 아리랑'에 대해 "일제 강점기 머나먼 낯선 땅으로 끌려간 한인들의 눈물이자,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아픈 역사의 노래"라며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 두 눈을 감는다, 사할린 아리랑이 점점 더 크게 들려 온다"라고 말했다.

근현대사기념관이 주관하고 있는 이 전시회는 강북구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주최했고 사단법인 한국미술인협회가 후원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4.08.20)

추석

(3 편의 계속)

신라시대에 이미 세시명절로 자리 잡던 추석은 고려에 와서도 큰 명절로 여겨져 9대 속절(俗節)에 포함되었다. 고려 9대 속절은 원정(元正, 설날)·상원(上元, 정월대보름)·상사(上巳)·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중구(重九)·팔관(八關)·동지(冬至)였다. 이 명절들은 조선시대로 이어졌고 조선시대에 추석은 설날,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로 꼽혔다.우리나라에서 추석 명절을 비롯한 세시명절의 위상은 근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 세시풍속이 농경의례로서 농사라는 생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만큼 산업사회 이후 공업이 생업의 중심이 되면서 농촌사회가 변화하여 세시명절이 약화하기 시작했다. 추석 또한 전통적인 성격이 퇴색하여 차례와 성묘하는 날로 축소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관

추석은 중추절(仲秋節) 또는 중추佳절(仲秋佳節)이라고 하며, 가을의 한가운데, 곧 가을 중의 가을인 명절이다. 추석 무렵은 좋은 계절이어서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5월은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은 한해 농사가 다 마무리된 때여서 봄철 농사일보다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해도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니 그만큼 추석은 좋은 날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특히 농촌에서 가장 큰 명절이니 이때는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진다.달의 명절로도 일컬어지는 추석에는 풍요를 기리는 각종 세시풍속이 행해진다.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차례와 같이 엄숙한 세시풍속이 있는가 하면 한바탕 흐드러지게 노는 세시놀이 역시 풍성하게 행해진다. 추석은 애초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서 이날 명절식으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중요한 행사다. 추석 전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 밭초를 하여 여름 동안 묘소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준다. 추석날 아침에는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차례는 대체로 4대 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부터의 관행이다.

의례

추석에 행하는 의례로 올베심리와 풋바심이 있다. 올베심리란 주로 호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올벼 천신(薦新)을 말한다. 올기심리, 올계심리, 오리심리, 올베신미라고 부른다. 올벼란 '일찍 수확한 벼'를 일컫는 것으로, 벼가 다 여문 무렵 혹은 채 여물기 전에 여문 부분을 골라 찮은 쌀이다. 벼가 덜 여물면 미리 술에 볶아서 말려두었다가 밥을 짓는다. 술과 조기, 햇병아리, 햇무 같은 것들을 상에 차려 조상에게 바치고 온 집안 식구가 모여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미리 베어온 벼포기는 안방 윗목 벽에 가로 묶어 두기도 한다. 호남지방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집에서도 벼포기를 사다 걸어둘 정도로 이 풍속은 일반화되어 있다. 올베심리는 대개 추석 무렵에 올리지만 '벼가 익을 무렵'에 올리므로 그 시기는 일정치 않다.벼뿐만 아니라 다른 곡식을 함께 걸어두기도 한다.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같은 곡식의 이삭을 한 줍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문설주에 걸어두는데 이것을 올계심리라고도 한다. 올계심니를 할 때에는 술과 음식을 차리고 이웃을 청해서 주연을 베풀기도 한다. 올계심니한 곡식은 다음해에 씨로 사용하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거나 터주를 비롯한 가신(家神)에게 올렸다가 먹는다. 올계심니는 이듬해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과 풍농을 예측하는 의미가 있다. 경북 안동을 비롯한 영남에

서는 올베심리와 비슷한 것으로 풋바심이 전한다. 논 가운데 누렇게 잘 익은 부분을 지게로 한 짐 정도, 벼로는 두 말 정도, 쌀로는 한 말 정도 미리 베어서 탈곡한다. 이 쌀로 밥을 짓고 제물을 갖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올베심리와 같다.또다른 추석의 풍속으로 반보기와 근친(覲親)이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추석 무렵에 반보기를 하는데 이는 반나절 동안 만나는 것을 말한다. 늦여름이 다 가도록 농사에 바빴던 일가 친척들이 추석 무렵이면 서로 약속하여, 양편의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 이것이 반보기인데 중간지점에서 만난다 하여 중로상봉(中路相逢) 또는 중로보기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특히 시집간 딸이 이 반보기를 통해 친정식구와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추석 전후가 되면 이런 반보기가 아니라 '온보기'로 새색시들이 근친가는 일이 많았다.

절식

설날의 명절식이 떡국인 반면 추석의 명절식은 송편이다. 명절식은 차례상에 올려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이 나누어 먹는다. 송편은 지역에 따라 음력 이월 초하루인 머슴날 또는 설날에도 만들어 먹지만 역시 가을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가을 맛은 송편에서 오고 송편 맛은 술내에서 온다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은 원래 계절에 유난히 민감하여 제철음식이란 말이 있다. 많은 떡 가운데 개피떡과 송편은 덤지도 않고 쫄지도 아닌 봄과 가을의 음식이지만 그 중에서도 개피떡은 따뜻한 편에 가깝고 송편은 서늘한 편에 가깝다. 그래서 봄에는 송편이 먼저 나온 뒤 개피떡이 등장하며 가을에는 개피떡이 먼저 나오고 송편이 뒤에 등장한다. 봄 송편은 햇솔로 묶은 쌀의 향기를 새롭게 하지만 가을 송편은 햅쌀로 술내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추석에는 올벼로 만든 오려송편이 제격이다. 웃기로 쓰는 송편은 삼각형의 작은 골무만한 것으로 이를 골무송편이라 한다.송편은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햇녹두, 청태콩, 동부, 깨, 밤, 대추, 고구마, 곶감, 계피가루 같은 것을 소로 넣어 둥글게 빚는다. 송편이란 이름은 송편을 찰 때에 쪼파다 술잎을 깔기 때문에 붙여졌다. 쌀가루를 익반죽할 때 쭉이나 송기를 찢어넣어 쭉송편이나 붉은 색의 송기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한가위 때 햅쌀로 빚은 송편은 각별히 오려송편이라고 한다. 오려란 올벼를 뜻하는 말이다.추석의 명절식으로 송편과 함께 토란국을 차례상에 올리기도 한다. 토란국은 다시마와 쇠고기를 섞어서 끓인다. 화양적과 누름적도 명절식인데 화양적은 햇버섯, 도라지, 쇠고기에 갖은 양념을 하여 볶아 꼬챙이에 끼운 음식이다. 누름적은 화양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밀가루나 달걀을 묻혀 지진 음식이다. 이 음식들 역시 차례상에 올린다. 또 닭이 살이 올라 가장 맛있는 계절이므로 추석의 절식으로 닭찜을 한다. 찜쌀가루를 써서 계란 같이 둥근 떡을 만들고 삶은 밤을 꿀에 개어 붙이는 올단지도 추석의 명절식이다. 밤 대신 토란을 사용한 토란단지도 이때 먹는다.추석 무렵에는 송이버섯의 향기가 유난히 좋다. 송이회, 송이전, 송이전골이 일품이며 음식의 고명으로도 송이버섯을 많이 사용한다. 한편 추석 무렵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저장용 반찬거리를 마련할 시기여서 박고지, 호박고지, 호박순, 고구마순도 거두어 말리고 산채를 말려 묵은나물을 준비한다.

놀이방법

추석에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소놀이, 거북놀이, 소싸움, 닭싸움 같은 놀이를 한다. 특히 추석과 같은 보름 명절에는 강강술래와 같은 원무(圓舞)가 중심을 이룬다. 한가윗날 보름달 아래서 노는 원무는 한층 운치가 있다. 추석놀이들은 단순한 놀이일 뿐만 아니라 풍농을 기원하고 예측하는 신앙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Озарение» да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ровным авторам выступить публично со свои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пообщаться и найт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получить уроки стихосложения, утвердиться в своем выборе, выверить вектор движения в ключ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Гала-концерт прошел в воскресенье, 8 сентября, в творче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Лаборатория речи»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кинотеатра «Мир».

코르사코브 공원의 날, 거품 쇼 열려

코르사코브 공원이 8주년을 맞아 거품 쇼를 개최했다. 이는 코르사코브 시 행정부에서 전해졌다.

기념일 메인 이벤트가 열리는 댄스장 입구에서는 손님들에게 종이 모자를 나눠주었다. 아이들을 위한 퀴즈와 릴레이 경주도 준비되었고 축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한 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받았다.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추첨이었는데, 참가하려면 공기 소총으로 사격 갤러리에서 정확하게 쏘고, 창작 작업실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스테이션에서 작업을 완료해야 했다. 상품은 교육용 게임과 퍼즐이었다.”라고 기사에서 언급되었다.

포토존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이 기념일에는 컴퓨터 게임의 캐릭터들도 참석했다. 기념일의 피날레는 성인과 젊은 손님 모두를 기쁘게 만들어준 거품 쇼였다.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арка устроили пенное шоу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ования восьмог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арка организовали пенное шоу.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При входе на танцплощадку, где проходили основные события праздника, гостям вручали бумажные колпачки. Для малышей устроили викторины и эстафеты. Активисты торжества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мороженое.

«Главной интригой была лотерея, право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которой можно было получить только выполнив задания на различных станциях: метко отстреляться в тире из пневматической винтовки, создать поделку в творче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и другие. Призами были развивающие игры и головоломки»,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на память можно было в фотозоне. Также на праздник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герои одной из компьютерных игр. Финал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пенное шоу, которое порадовало и взрослых, и маленьки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우글레고르스크, 수의학 마라톤 대회 개최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초음파 전문가, 안과, 피부과, 치과, 실험실 진단 및 수술 의료진이 동물의 건강을 확인했다. 이는 구역행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50여 마리의 동물들이 수의사를 방문했다. 이를 동안 이 지역 동물병원 의사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아니와의 동료들과 함께 일했다.

“전에도 중성화 수술을 위해 보호소에 손님들을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 다음에는 제 반려동물도 데려올 거예요!”라고 “자쉬트니크(보호자)” 보호소 직원 강 야나가 소감을 전했다.

В Углегорске прошел ветеринарный марафон

В Углегорске УЗИ-специалисты, офтальмологи, дерматологи, стоматологи, медики лаборатор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и хирургии проверили здоровье животны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К ветеринарам привели свыше 50 братьев наших меньших.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дней медики из местной клиники работали вместе с коллегам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Анивы.

«Ранее к нам уже приезжали, отводила наших постояльцев из приюта на стерилизацию и кастрацию. Я сама являюсь владельцем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в сле-

дующий раз и своих приведу!»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работница приюта «Защитник» Яна Кан.

아니와, 환경 경주 개최

아니와 지역에서 “러시아의 물”이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생태 경주를 개최했다. 이는 시구행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주최측은 이러한 행사를 ‘플로깅’이라고 부르는데, 쓰레기 수거와 결합된 가족 달리기이다. 도시의 날에는 에코클럽 “에코스톰”의 활동가들이 팀을 이루어 아니와 해안을 달리며 청소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 지역 청소년층의 지원으로 실현되었다.”라고 기사에서 언급되었다.

여러 팀이 에코런에 참가하여 수백 킬로그램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바비큐 그릴, 매트리스, 담요, 낚시 그물 등이 수거되었다. 에코런의 모든 참가자는 기념 메달과 함께 가족과 함께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шел экологический забег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вели экологический забег в рамках акции «Вода России».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зывают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логгинг» – это семейный забег, совмещенный со сбором мусора. Активисты экоклуба «ЭкоШторм» в День города собрали команды, которые сделали пробежку и навели чистоту на берегу залива Анива.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Всего в эко-забе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сколько команд, которые собрали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килограммов отходов. Это стеклянные бутылки, пластиковая тара, решетки от мангалов, матрасы и покрывала, рыболовные сети. Все участники эко-забега получили 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амятные медали и незабываемые эмоции от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я семь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